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2호 현대불교
2007년 6월 13일(음력 4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뿌리가 있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요

문 마음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가다 보면 이 공부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힘이 미약해서 도대체 공부가 안되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 판단을 잘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즉, 교재와 공부입니다. 인생 공부. 여기서 이런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닦은 살아나가면서 다 겪어야 하고 그런데 뭐하러 '내가 다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걱정을 합니까? 사실상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있는 건데 내가 공부가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거는 그 걸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 피고 있는가?' 이렇다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아,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을까? 꽃은 피었는데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이렇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찍이 있으니 그대로, 그대로 여유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거를 내가 공부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 찍은 거기에 의지하고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지

문 저는 불자들이 모인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국민병원이란지 또는 시립병원, 행려병동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의뢰받고 있는 소외된 환자들을 위문도 하고 간병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희망을 주고 있는데 마음공부를 해 나가는 불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내고 위안을 해 주어야 할바른 것인지 명쾌하게 답을 얻지 못해서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원하옵니다.

답 자기가 자기를 믿게끔만 해 주다면, 이리도 동그라져도 주체가 거기 있고 저리로 동그

라져도 주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도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다면 나는 항상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바깥으로 찾는다면 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허영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속에 종자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불성 종자가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靈)의 종자는 바로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야 한 게 아니라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타인을 믿는다면 모두 마귀의 장난과 같으니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에 그만 거기에서 딱 막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딱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자라고 그랬거든요. '각자 너를 믿지 않는다면, 타의에서 구한다면 그건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못났든 잘났든 너로부터 이 세상이 있는 거지 너

별의 가닥가닥, 갈래갈래로 모습이 돼 있고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무명초는 가져다 잘라 버려라, 나오는 대로 잘라 버려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나오는 대로 깎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원호 대사가 설교할 때 쓰레질을 해 놓은 걸 보니 말갈게 쏘아 냐거든요. 쏘아서 무더기를 지워 놓았는데 가서 한 움큼을 집어서 다시 뿌려 냐요. 이런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아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발 떼어 놓고 들어오는 격이란 말입니다. 한 발 떼어 놓으면 없어지고, 한 발

지 않는 몸이 50%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체가 50%다.' 하는 것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산 사람이 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체가 또 반이 있죠. 밤낮이 이렇게 돌아가듯, 살고 죽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듯, 그러니까 불자에게는 당신 자부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안에, 그 슬한 보살의 이름이 다 거기에 있다고, 당신에 어떤 걸로 비유한다면 그 약사보살은 바로 당신한테 있다고, 그 자부처의 마음에서 약사보살이 나온다고 그렇게 일러 주세요. 그렇게만 일러 주고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무진장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주장자라야 되겠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주체가 있고 나로부터 이 몸통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고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이름이 돼 버리고 자기 인식들이 그렇게 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 구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레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던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이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위축시켜서 생각을 그렇게 하니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라, 거기서만 살아라.' 이러는 거와 뭐가 다를까? 사람들의 마음

를 빼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체의 자기 주인공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바깥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이 진리의 이름만을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죠. '불(佛)'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을 말한다. '교(敎)'는 일체 만물만생의 생활이다. 일체 만물만생이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교'라 그러한다. 모든 생활에서 배우고 느끼고 지혜가 넓어지고 또 연구를 하고 창조가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언어는 진리를 말하는 거지 머리 깎은 사람이 믿는 것으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수녀들이 머리에 쓰고 하는 거나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를까? 이 세상 삼라만상이 천차만별로 그 수레바퀴에 깔리고, 그냥 천차만

때어 놓으면 없어지는데 한 발 떼어 놓는 게 없다면 그냥 무효죠. 그러니까 역시 떨어지면 또 쏘여야 하고 떨어지면 또 쏘여야 하는 것이 이 진리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한테 이익하게 하려면 무조건 당신 마음에 주체가 있는 거니까 밖에서, 먼 데서 주님을 찾지 말고 일러 주는 거죠. 당신을 벗어나서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깊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또 불자들한테 이익 되고 공덕이 되게 하려면, 마음이 합쳐져서 공덕이니까 한마음으로 한 공덕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 마음들이 한데 합쳐져서 일을 해 주니까 공덕이죠. 그러나 한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면 공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 아나게 돌아가야 한다. 전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이 50%가 있다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이 50%가 있다.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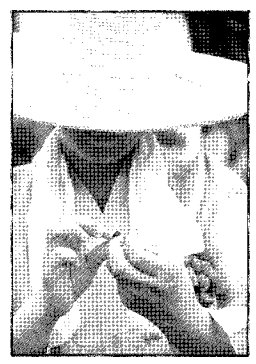
천도가 왜 생겼는지?

문 불가에서의 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그리고 천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머니께서 자주 꿈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보이고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요.

답 천도가 왜 생겼느냐. 정신계의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의식이, 항상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천축 집을 맴돌거나 자기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묘지에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없어지고 나서 잔뜩 들어 있던 업식이 그림자처럼 나타나니 한 발 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업식 소굴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통이 속에 업식, 의식, 모습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십시오. 모습들이 얼마나 천차만별로 돼 있나. 보지 않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모습들이 자기 소인을 맡아 가지고 작용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작용을 해 가지고 파위를 일으키고 해서 자기 집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듯이 온통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고, 강을 건너려야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불바퀴를 넘어서려야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이러니까 오백 년이 돼도 천 년이 돼도 물가에서 뱅뱅 돌면서 한 치도 건널 수 없죠. 이러니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병이나 낫겠다고, 또는 자기가 잘되려고 천도재를 한다면 아니 됩니다. 목은 빛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 드린다면 자손들은 더불어 벗어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한 염주 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잠깐만 생각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급하게 생각하고 온통

22면으로 계속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웅하며 쓴 마지막 순간들의 기록!

견문을 두 달 앞두고 급성 위암 판정을 받아 약혼자와 함께 청도마을로 온 스물여섯 살 아가씨의 눈물 겹고도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군인의 아내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모두 박사로 키웠지만 어느 날 알 선고를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을 남겨둔 채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문밖 꽃이 없어 기구하게도 기록도 보지 못하여 하는 한 스님의 이야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비로소 평화롭게 떠나는 한 여인의 애절한 이야기 등 그들에게는 한순간이라도 아쉽고 안타까웠을 순간들이 책의 페이지 페이지마다 그려지고 있다. 이 책은 실제 에피소드로 그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의 기록이자 우리들이 맞이할 미래의 시추에이션이다.

이승과 저승의 간이역 정토마을 바구니 농행스님의 이별과 만남 이야기!

농행스님이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웠던 2년 전 하나 둘 메모해둔 원고가 이 책의 바탕이 됐다. 그간의 활동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어 예가 생생하고, 그런 만큼 설득력도 크다. - 중앙일보
농행스님은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죽음이 딱히 질질 끌려가기도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담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죽음일까 하고 묻는다. - 동아일보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농행 지음 | 신국판 | 율령러 | 276쪽 | 값 9,500원

www.dosolbooks.com
Tel. 02.335.5755



불편해도 좀 잠아 보라
갖고 싶어도 좀 기다려 보라
그 속에 존재의 깊은 풍요가 있다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지음 | 신국판 | 율령러 | 280쪽 | 값 9,500원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부자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부(富)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그 근본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단순히 소유가 많은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법을 알려준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 이웃과 직원들에게 나눌 줄 아는 부자, 돈과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부자, 기도와 명상으로 깨어 있는 부자,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부자, 그런 부자로 이 순간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www.dosolbooks.com
Tel. 02.335.5755